

##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노인의 삶의 경험

황보선\* · 신유선\*\* · 윤석옥\*\*\* · 이지현\*\*\*\* · 정경임\*\*\*\*\*  
김정순\* · 김이순\*\*\*\*\* · 김복용\*\*\*\*\* · 강영미\*\*\*\*\*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급진적인 경제발전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생활수준의 향상은 물론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전세계적으로 노령화 사회가 초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증대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노년기에 더 많은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이 곧 노인들의 건강상태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Kcalish(1975)는 노화현상이란 인간발달단계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병리적이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독특한 특성이 있듯이 노인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발달과업과 특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노화현상은 생물이면 겪게되는 한 성장발달과정으로서 노인의 건강은 노화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노화과정의 정도에 따라 몸의 조직과 기능이 소모되고 남아지면서 기능의 저하, 장애, 상실 및 병리적 상태까지 초래되어 운동능력 및 기민성 저하, 소화능력 감퇴, 시력과 청력 약화, 골격의 퇴행성 변화, 피부의 건조 및 혈관계 이상 등의 많은 신체적 건강문제가 야기된다(전산초, 최영희, 1990). 또한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노인에게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사회적인 관계에까지 제

한을 받게 된다. 사회, 심리적 변화는 주로 역할상실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인은 직장은 퇴, 배우자상실, 자녀의 독립, 친구나 친지의 죽음 등으로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직장은퇴와 더불어 야기되는 경제적인 불안정과 사회나 가정에서의 역할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인 문제가 축적되어 고독이나 소외감 및 죽음에 대한 공포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김동일, 1980; Brunner, Suddarth, 1993). Havighurst(1977)는 노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지위나 역할상실에 적응 또는 대처해 나가는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의 생활조건에 적응하는 것이므로 적응이 비교적 쉽고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성격, 사회적 환경, 신체적 조건 이 세가지 요소의 밀접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년기는 인간 발달의 마지막 단계이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자신의 생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과거를 되돌아 보게 되며 이때 지나온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는 삶이었다고 평가하여 현재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 할 때는 자아통합감이 성취된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에 자신의 지난 생애를 불만족스럽고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엔 절망하게 되고 우울과 고독에 빠져서 누군가의 관심 있는 배려가 없을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악화되게 된다(윤진, 1985). 특히 의지할 자녀가 없으며, 경제적

\* 부산의대 간호학과           \*\*\*\*\* 침례병원 간호부  
\*\* 부산가대 간호학과       \*\*\*\*\* 춘해간호전문대학  
\*\*\* 전 교신의대 간호학과   \*\*\*\*\* 대동간호전문대학  
\*\*\*\* 교신의대 간호학과

으로 자립이 곤란한 영세 독거노인의 경우 빈곤에 의한 불안 및 우울, 소외감, 외로움 등의 사회,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문제와 더불어 오늘날 노년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노인성 치매”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인간은 신체, 정신, 사회 그리고 영적으로 통합된 총체적 존재로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여 궁극적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지막 과업발달 단계인 인간 황혼기에 있는 노인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보다 질적인 삶이 모색되어 행복한 삶이 영위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간호중재 방안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노인의 더 심한 퇴행을 막고 노인 스스로 자기위치를 유지하도록 도우며, 현재 자신에게 처해진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인생의 최종 마무리 단계인 노년기에 보다 수준높은 질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간호학적 돌봄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노인들의 제 문제를 돕기위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 신체 및 정신건강, 주택, 고용, 여가선용, 사회보장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김정순, 1989). 그리하여 노인들의 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수량화하여 파악하는 양적연구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양식의 총체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생활맥락에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더 관심을 갖는 질적연구방법 즉, 인간을 주관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탐구하고 증거하는 비교사적 방법이나 현상학, 문화기술적, 상징적, 의미론적 방법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김귀분 등, 1992; 김남선, 1987; 최영희, 조명옥, 1992; 최영희, 1993).

이에 본 연구는 노년기에 처해 있는 영세 독거노인들의 삶의 경험 즉, 그들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생생한 산 경험(lived experience)을 근원적으로 규명하여 전체적인 구성을 서술할 수 있는 현상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노인들의 보다 질적인 삶을 영위케하는 긍정적인 삶의 대처 방안이 간호중재로써 모색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특히 사회의 요구에 따라 간호의 역할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양질의 간호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간호를 위한 실무영역의 이론적 틀 및 구축과 전문적인 간호이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세 독거노인들의 삶의 경험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바라봄으로써 보다 질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한 전인적 간호중재를 모색하는 데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유형을 확인한다.
- 2) 노인들의 경험하고 있는 삶의 유형에 따른 간호학적 접근방향 및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 II. 문헌고찰

### 1. 현상학적 접근

자연과학은 수학적 공식에 대해 수량화가 가능하고 자연현상을 통제, 예측하게 되어 문제 해결에 있어 객관성은 유지하나 인간의 경험이 배제되고 비인격화가 되어 인간에 대한 연구나 역사연구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 정신의 자주성과 권위를 회복하고 과학에 대한 철학의 독자적인 입장을 확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여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훗설을 중심으로 데카르트적 주관주의와 갈릴레이식 객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실 그 자체로’를 위해 현상의 기술과 직접 탐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현상학이 대두되었다(최영희, 1993). 현상이란 나타난 모든 것으로 어떤 일정한 경험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현상학의 탐구 영역은 경험이며 경험의 구조 분석을 통해 경험의 근저에 있는 이성을 밝히려는 것이다(최영희, 1993).

철학적 전통으로서 현상학은 Husserl(1859-1938)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Husserl(1927)은 우리의 주관적 경험의 세계가 그 형식과 내용을 당연시 하는 과정(그가 “자연적 태도”라 부른 것)을 통해 여과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찰자는 주관적 경험을 순수한 형태로 파악하기 위해 종래의 복잡하게 뒤얽힌 이해방식을 일괄하여 묶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종래의 경험주의의 인식론과 그런 이론을 밀바탕으로 한 모든 과학적 지식이 확실한 앎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것들이 소위 ‘자연주의적 입장’에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종래의 앎의 이론과 그에 입각한 과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을 떠나서 그 의식 밖에 독립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입장이며 이와같은 전체 자체는 어떠한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전체에 바탕을 둔 어떠한 지식도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명증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연과학이 주장하는 사물에 대한 진술을 잘못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연과학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당분간 보류해 놓고 좀더 그 주장의 근거를 캐보는 뜻이다. 이러한 현상학적 태도를 Husserl은 판단중지(epoche)라고 부른다. 그래서 판단중지는 필연적 앎을 찾는 출발점이 된다. 명증된 앎만을 인정하려는 현상학의 “사물대로 돌아 가라”는 주장은 ‘사물’이란 말이 물질로서의 사물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경험 즉 ‘의식현상’을 말하며 현상학에 있어서의 ‘현상’은 ‘경험’으로서의 현상 즉 ‘경험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박이문, 1977).

현상학적인 접근은 대상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지각의 장에 들어감으로서 그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주관적 해석으로부터 실재(reality)를 형성하는 행위자들의 행위 의미를 설명하는 현상학은 우리 일상생활을 이끄는 지각적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前과학적, 前이론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접근으로 살아있는 인간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파악하게 하며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Davis, 1978). 즉 현상학은 인간의 살아 있는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식을 파악하여 그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방법이다(최영희, 1993). 또한 인간의 의식내에 존재하는 본질인, 선형적으로 조화되어진 순수한 의식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반성하면서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적 연구방법의 목적은 인간이 경험한 특정현상에 대한 다양하고 총체적인 의미를 밝히기 위해 대상자가 기술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직접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 현상의 완전한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본질을 해석하거나 경험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함이다(박이문, 1990).

또한 현상학은 인간의 살아있는 경험에 관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그 경험에 참여하는 참여자 자신이 갖는 의미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과학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의 철학적 배경인 인본주의 간에 공유해야 하는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갖게 한다(Lynch-Sauer, 1985). 간호는 인간을 총체적이

고 의미함축적인 견해로 보며, 인간은 통합되어 있는 전체(unitary whole)라는 신념과 이런 통합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런 holism을 실현하기 위해 인본주의가 요구된다(Oiler, 1982).

현상학은 살아있는 인간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며 대상자의 실재에 접촉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요구하므로 현상학적 접근은 간호의 맥락과 일치하며 통합된 인간에 대한 간호개념을 파악하는데 가치가 있다. 특히 경험 분석적 과학주의에 상응하는 인간관, 간호관 및 그러한 방법적 원리에 바탕한 질병위주의 목적 달성이론에 대해 현상학은 깊이 있는 반성적 성찰의 근거가 된다는 점과, 현상학적 상호주관성은 간호주체와 간호대상의 상호관계에서 인간애에 바탕한 간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현상학 방법은 통합된 인간(unitary human being)에 대한 간호개념을 파악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Davis, 1978; Parse, 1981; 최남희, 1991). 따라서 현상학은 간호전문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이다. Leininger(1985)는 현상학적 방법이 주어진 현상에 대해 총체적인 전망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했으며 Anderson(1991)은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면 인간의 살아있는 경험을 서술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 노년기 삶의 특성

최근에 우리나라는 정부의 인구정책이 주효하여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는데 반하여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평균수명은 점차 길어지고 있어 전체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인 문제도 여러가지 형태로 대두되어 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다방면에 걸쳐 제기되게 된다. 즉 시대적 사조나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경로사상의 약화와 핵가족화, 그리고 부양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노화현상으로 인하여 기능저하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문제의 관리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조유향, 1992).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인에게는 주어지는 일이 없이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막연히 생각되어져 오고 있으며, 노년기는 아동기, 성인기와 마찬가지로 성장 발달하는 한 단계이며 노인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발달시켜야 하

는 과제와 적응해야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노년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년기는 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체조직의 뚜렷한 기능저하와 자아적응의 저하가 두드러지며 완속기 혹은 절망의 시기, 쇠퇴기라 부르기도 하며 모든 기본적인 욕구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시기로서 인식, 존경, 애정, 성취, 안전, 자존심 등의 욕구를 강하게 추구하게 된다(김미옥, 1986). 노인집단은 그 어느 연령집단보다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 반면 여기에 대응하는 능력은 감퇴되어 있어 이로 인해 신체, 사회, 심리적 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들의 신체적, 환경적 제약에다가 주위 사람들의 관심부족 혹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우울, 좌절, 무력감, 무가치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김정순, 1991).

제2차 노인학회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 할 수 있는 조직기능이 감퇴되고 있으며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며 인체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고 생체의 적응능력이 점차로 결손되고 있으며 조직 및 기능저하의 소모로 인하여 적응 감퇴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장인협, 최성재, 1987). 따라서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력 저하, 불안, 자기 중심적, 과거의 일에 대한 집착, 후회, 눈앞의 일에 대한 무관심, 혼자서 아파하고 걱정,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 망설이고 주저하며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고 의혹심이 많다. 또한 자기의 기분과 감각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과거 고생사를 자주 이야기 하며 잡다한 것에 대한 애착을 보인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물려주고자 하며 죽기전에 하고 싶어하는 것을 파악하여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란다(대한적십자사, 1995). 이러한 특성을 가진 노년기를 인간이 성장해나가는 발달과정상에 있는 것으로 볼 때, 노화는 모든 생물의 변화과정이다(Beaver, 1983). 먼저 생리적인 측면에서 생물학적인 변화과정을 보면 노인이 되면서 세포수가 감소되고 축적작용이 감소되므로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이 저화되며, 노령으로 오는 세포의 변화는 질병이 아니라 생리적 변화 과정인 것이지만 이 변화는 질병에 대해 민감성을 증가시키므로 노인의 75% 정도는 만성질환에 걸

려 있다고 한다(모경빈, 1980). 그러므로 노년기에는 전신적인 노쇠증상이 심해져서 시력 및 청력감퇴와 식욕감퇴로 인한 영양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배설은 장의 운동기능 부족, 치아의 상실, 식욕부진 등 이런 모든 쇠퇴적 조건으로 인해 변비를 초래하게 된다. 순환상태는 생리적으로 혈관이 굳어짐에 따라 순환기능이 나빠진다. 순환의 불량상태로 인해 가끔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때도 있다. 또한 뇌의 혈액순환이 불충분하여 산소공급이 부족되면 혼수상태에 빠지는 수도 있다. 신경계통은 외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고 둔해진다. 그 뿐만 아니라 감각이 둔해짐에 따라 열과 냉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퇴된다. 기초대사율 뿐만이 아니라 호흡기능의 효율성도 감퇴되며 근골격계의 변화로서 뼈속의 칼슘성분이 고갈되어 뼈가 가벼워지고 밀도도 낮아져 골절이 잘되며 핵의 분열이 더디어져 조직의 재생이 매우 지연된다(모경빈, 1980; 이오누네 카츠야, 1988; 전산초, 1986). 또한 관절염, 신경통 등의 질환이 빈발하므로 통증이 생긴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노인의 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체기능 쇠퇴로 활동성이 감퇴되고 정력부족, 개인위생에 소홀해지기 쉬우며 흥미범위의 협소화, 자기 중심적이 된다(박조열, 1983; 조유향, 1988; 김정자, 1989). 시력 및 청력 감퇴는 사회적 대인접촉을 줄어뜨게 하며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한다. 또한 백발과 주름살의 증가, 허리가 굽어지게 되어 늙음을 자각하게 되며 앞날에 대해 비관케 한다(윤진, 1991; 박조열, 1983).

다음으로 노년기의 심리적 변화를 보면 우울증을 들 수 있다. 노년기는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악화, 사회와 가족들로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으로 우울증 경향이 증가된다고 하였다(윤진, 1991). 우울증이 지나칠 경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절망이란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과거의 생활에 혐오를 느끼고 비현실적이며 도달하기 어려운 목적을 세우고 죽음에 대해 병적인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이외에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행동이나 사고는 점차 느리게 되며 기억력이나 학습능력도 쇠퇴하게 된다. 새로운 요구에 대한 적응도 곤란해지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도 적어져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장인협, 최성재, 1987; 윤진, 1991).

그리하여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진다고 했는데(Roscow, 1977), 일반적으로 노인의 존재가치가 저하됨에 따라 젊은이로부터 무시당하고 가족이나 친척들의 무관심, 심지어는 노인 상호간에 있어서도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 예가 있다. 노인은 고집과 거부성을 띄고 있어 단체활동을 할 경우 다른 단체와의 타협과 수용이 개인의 경우보다 어렵다. 또한 노인은 사회참여나 사회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쉽고 불이익이 누적되어 소외되기 마련이다. 가족 구성원으로서나 일에 있어서 역할, 기능을 상실해 간다. 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면 이미 노쇠하여 능력이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젊은이와 비교하여 노인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기 보다는 젊은이의 역할을 계속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노인들은 말로는 "이미 늙어 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새로운 역할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이종의 심성을 갖기 쉽다. 이와같이 노인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변화기에 있으면서 특유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그 욕구충족의 결여로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약화, 역할의 상실, 소외된 고독감 등의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개인이 외부로부터 가해진 자극에 의해 그의 안정상태에 변화가 초래되었을 때 물질,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바로 사회적 지지라고 할 수 있다.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란 대상자로 하여금 (1) 자신이 보살피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 (2)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 (3)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이끄는 정보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정보라고 했고 Kahn(1979)은 사회적 지지란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 지각, 견해 등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징적 또는 물질적 조력을 제공하는 대인적 관계라고 정의했다.

Dean & Lin(1977), McDonald(1970) 등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가족이 가장 효과적인 집단이라고 하였고, Cobb(1976)는 인생의 종말에 가까워질 수록 사회적 지지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로 부터 획득된다고 하였다. Silverstone(1978) 역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보살핌의 대부분은 가족지지체에 의한 것이라고 했고 다른 연구에서도 노인들의 받는 지지적 간호의 80-90%는 가족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가족 다음으로 노인들에게

중요한 지지체는 친구 또는 이웃인 것 같다.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가족 지지만큼 친밀하거나 장기적이진 않지만, 가족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응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졌다(Cantor 1979; Johnson, 1983). 노인들이 이웃이나 친구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이유는 그들간의 연령, 성, 사회계층, 인종, 결혼상태 및 신념과 생활양식의 유사성에 있다고 본다. 친구관계는 보통 이러한 유사성에 근거해서 형성되어지므로 이러한 배경과 관심의 유사성이 노인들로 하여금 보다 친밀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들과의 교제가 재미와 즐거움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이다(Hess, 1972; Larson, 1984).

노년 사회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성공적인 적응이라는 견지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즉, 노인들이 당면한 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라는 것이다(Linn et. al., 1979). Bromley(1974)는 성공적인 적응이란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적응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행복, 자신감, 사교성, 자아존중감, 생산적 활동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적응부전이란 열등감, 무감각, 퇴행 또는 불능의 형태로 표현되어 진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 생활에의 적응을 도움으로써 성공적인 노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노인의 특성과 더불어 독신생활, 낮은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 및 경제활동 능력이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점 등이 노년기 생활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노인생활이 가지는 특징 중 독신은 고독감을 가중시키며 노부부가 생활속에서 서로 지지해야 할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독신의 불편은 큰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배우자를 잃은 독신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신의 용돈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생계비를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의 과거 직업을 보더라도 농·임·어업에 종사하였던 노인이 많았으며 그 이외에도 비숙련 노동이나 판매 및 서서비스직중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 노인이 많아 교육수준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빈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조유향, 1992).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진 노인 간호의 목표는 개개 노인에게 노화라는 조건에서도 최대한으로 자립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다. 즉 노인이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인간다운 인생을 완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간호의 과제는 노화와 만성질환을 노인 자신이 받아 들이고 이러한 조건에서도 노인이 최대한으로 자립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년기 생활을 탐구하고 연구하여 노인이 적응하도록 도와 주는 것에 있다.

특히 영세독거 노인은 노년기 특유의 적응과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고독감의 문제를 함께 안고 있어서 성공적인 자아통합에 어려움을 안고 있으므로 노인으로서 하여금 최대한의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의 조성과 도움의 방법을 고려하고 실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독거 노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연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세 독거노인의 삶의 경험 현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질적 연구방법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귀납적, 서술적 연구이다.

#### 1. 연구대상

##### 1)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영세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다.

- (1)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 (2) 연구참여에 동의한 사람

연구대상자는 부산시내 금정구, 동래구, 동구, 사하구에 거주하는 영세 독거 노인으로서 같이 사는 가족없이 최소한 혼자 산지 3년이상인 된 사람들이었다. 적절한 연구대상자의 수는 연구자가 연구문제에 관한 더 이상의 새로운 서술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진술이 반복될 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Parse & Coyne & Smith, 1985)는 점을 고려하여 경험의 기술이 반복되는 시점인 21명으로하였다.

##### 2) 연구대상자 보호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면접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대상자의 인권에 대하여도 전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 2. 연구조사자의 훈련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현상학적 접근법은 대상자의 생생한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연구주체에 적합한 심층면접 및 관찰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들은 1995년 1월에 일주일간에 걸쳐 구체적인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이론적 교육과 실기교육을 연구자들이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연구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법과 비지시적인 면접요령을 훈련하였다.

#### 3.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1995년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였다. 자료수집전에 먼저 연구자들이 지역사회간호학 실습기관인 부산시내 4개 종합복지관의 진료실에 근무하는 지역사회간호사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대상자를 소개 받은 후 다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자의 신분, 연구목적 및 방법과 인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의 참여를 허락받았으며, 연구에 대한 참여는 강요하지 않았다.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자가 직접 반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는 직접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담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면담자의 양해를 구한 다음 대상자 앞에서 녹음하였으며, 면담내용의 녹음을 거부한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대상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고려하여 면담 약속을 한 후 면담자가 원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복지관 상담실이나 가정방문을 통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경험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상자들과 신뢰감있고 친근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대상자와 신뢰감있고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주고 대상자들을 돕고 싶어하는 연구자의 의도를 진솔하게 표현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서로간에 편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면담을 시작하여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였다. 면담은 일반적인 대화로 시작하였다. 즉, 날씨 및 최근 근황 등의 대화를 통해 전 생애과정을 이야기하는 동안 중요한 내용은 다시 질문하거나, 면담이 끝난 후에 다시 확인하여 다음 방문시 질문하였다. 연

구질문의 내용은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혼자 사시는 동안 가장 어렵고 불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등의 질문형태를 사용하였고, 의도적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도록 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식으로 표현하도록 지지해 주고, 기술적 표현이 나올 경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대화시 일관성있고 관심있게 경청하였다. 총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개인당 2시간-3시간 30분정도 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녹음된 자료를 기록하는 데는 대상자 1명당 5시간-8시간을 소요하였다.

#### 4. 자료정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삶의 경험의 기록을 Van Kaam(1969)이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Van Kaam이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은, 연구자가 직관하고, 분석하고, 기술하는 과정을 통해 대상자의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생각을 완성시킨다. 이 방법의 과학적 설명을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 원자료를 숙고하여 기술적 표현을 끌어낸다.
- 2) 원자료를 분류하여 공통요소를 확인한다.
- 3) 현상과 관련이 되지 않는 표현은 제거한다.
- 4) 현상의 가설적 정의를 형성하고, 원래의 기술에 가설적 정의를 적용한다.
- 5) 구조적 정의를 확인한다.

첫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와의 면담내용을 여러차례 반복하여 들으면서 기술한 내용을 숙고하여 368개의 기술적 표현을 끌어내었다.

둘째 단계로 우선순위별로 기술적 표현을 분류한 다음 기술적 표현으로부터 표면에 드러난 74개의 공통요소를 확인하였으며, 이 공통요소는 대부분의 기술에 명백하게 있는 것으로서 기술된 모든 내용과 모순되지 않게 도출하였다.

세째 단계로 대상자의 삶의 경험의 현상과 관련이 되지 않거나 막연하고 복잡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은 재구조화하거나 제거하였다.

네째 단계로 74개의 공통요소는 모든 기술에 적용된 현상에 대해 18개의 가설적 정의로 통합했고, 원래의 기술을 가설에 적용시켰다.

다섯째 단계로 기술적 표현, 공통요소 및 구조적 정의의 입증을 위해 현상학을 이해하고 질적연구를 하고 있는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 교수 1인에 의해 판단을 받았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66-70세가 6명(28.6%), 71-75세가 2명(9.5%), 76-80세가 9명(42.9%), 81-85세가 4명(19.0%)으로 모두 2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5.8세 였다. 대상자의 종교는 기독교가 6명(28.6%), 카톨릭 1명(4.8%), 불교 5명(23.8%), 통일교 1명(4.8%), 무교가 8명(38.0%)이었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20명(95.2%), 남자가 1명(4.8%)으로 여자가 월등히 많아 여자의 평균수명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종류는 20명(95.2%)이 의료보호 1종이었고 1명(4.8%)만 의료보호 2종이었다. 대상자의 독거기간은 최소한 3년이상된 사람들로서 최고 62년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독거기간은 19.8년이었다. 대상자의 주거 형태는 전세가 13명(61.9%), 월세 3명(14.3%), 전세와 월세를 겸한 경우가 2명(9.5%)이었고 무허가라도 자가인 경우는 3명(14.3%)이었다.

### B. 분석결과

각 범주에 따른 구조적 정의와 가설적 정의, 공통요소 및 기술적 표현(significant statements)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 표현은 대상자가 표현한 수가 많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술하되 한 사람에게서 여러번 나온 것은 한번으로 간주하고 21명중 많은 사람이 표현한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 1. 신체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

신체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는 77개의 기술적 표현에서 14개의 공통요소가 2개의 가설적 정의와 1개의 구조적 정의로 범주화되었다(표 1-1, 표 1-2참조).

신체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으로는 심한 통증 호소, 신체적 각 기관의 기능저하를 의미하는 가설적 정의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요리 누우면 요족이 배기고 조리 누우면 조팍이 배기고”, “허리가 땡겨서 한참 옆드려 있어야 되고” 등 허리가 아픈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다리 한쪽이 땡겨서 죽겠는기라”, “오른쪽 다리가 저리로 쓰리고 막아파”, “사방이 아피부라”, “뒷골이 땡겨서”,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애”, “눈알이 쿡쿡 쑤시는 것이”, “셋바닥이 갈라져 맨날 팡팡 쏘지”, “귀속에 가시가 낫힌것 같아”, “뺨히지도 않고 이가시려”등의 사지, 전신, 머리, 속, 눈, 입, 귀, 치아가 아픈 신체적 문제를 심한 통증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제일 불편한기 숨찬거

고”, “담이 자꾸 합쳐가고 꿀꿀하지”, “소화안되고 음식맛도 없고”, “이가 없으니 밥썰기가 어려워”, “이리저리 잠도 안와”, “오줌이 쉬원케 안 나오는기라”, “눈은 안 그렇더니 인자 하얀게 자꾸 끼고”등의 세부 장기 기능이 약화됨을 호소하였고 “지금 폐가 안좋아 기침이 많이나와 평생 골병이라”, “당뇨도 있고 무릎팍도 안종고”, “다리가 힘이 없어가고 쫓아 나가다가 미끄러져 가고”, “발이저려 작대기를 집고 걷기는 하는데”등의 만성질 환으로 고통스러움을 호소하였다. 한편 “다리를 통 못 웅그리요”, “몸이 작년 다르고 올게 달라: 이젠 말도 크게해도 안좋아”등 점차 몸이 약해지므로 신체적 각 기관의 기능저하를 호소하였다.

〈표 1-1〉 신체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

기술적 표현	공통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리가 많이 아파예</li> <li>• 요리 누우면 요족이 배기고 조리누우면 조팍이 배기고</li> <li>• 허리가 불러찼라고 하지</li> <li>•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맘대로 못시거든</li> <li>• 허리가 땡겨 한참 옆드려 있어야 되고</li> <li>• 허리가 아픈데 심하면 숨을 못쉬겠어</li> </ul>	허리가 아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리 한쪽이 땡겨서 죽겠는기라</li> <li>•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쓰리고 막아파</li> <li>• 무릎팍 그렇지 발목 빨라졌지</li> <li>• 다리하고 팔하고 제일 아프죠</li> <li>• 너무아파 앉지도 걸지도 못하고</li> <li>• 뭇 조금하면 손발이 저리고 팔다리가 이렇게 늘쑤시고</li> <li>• 무릎이 아파서 못걸디겠어</li> <li>• 손끝티가 하나같이 모두 아려</li> </ul>	사지가 아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방이 아피부라</li> <li>• 눈만 뜨면 온 전신이 두드러 맞은 것 같애</li> <li>• 온몸이 엄청나게 아파</li> <li>• 구석구석 온 천지가 다 쑤서</li> </ul>	전신이 아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이 아프고</li> <li>• 바늘을 한용름 잡고 팡팡 쑤서 부러</li> <li>• 뒷골이 땡겨서</li> <li>• 멍한게 구름탄것 같치</li> </ul>	머리가 아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가 아파</li> <li>•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애</li> <li>• 속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애</li> </ul>	속이 아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알이 쿡쿡 쑤시는 것이</li> <li>• 눈알이 앞으로 쏟아지는 것 같애</li> </ul>	눈이 아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혀에 고치까리를 뿌린 것 같은기라</li> <li>• 셋바닥이 갈라져 맨날 팡팡 쏘지</li> <li>• 화끈화끈 거려</li> </ul>	입이 아프다

기술적 표현	공통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컷속에 가시가 뿔힌것 같아</li> <li>• 씹히지도 않고 이가 시러</li> <li>• 밖에만 나가면 숨이차고</li> <li>• 제일 불편 한기 숨찬거고</li> <li>• 숨이차고 못견디</li> <li>• 담이 자꾸 합쳐가고 꿀꿀하지</li> <li>• 뭐 먹으면 소화가 잘안되</li> <li>• 음식 맛도 도통 모르겠고</li> <li>• 소화안되고 음식맛도 없고</li> <li>•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li> <li>• 먹고 나면 설사되고 변비되고</li> <li>• 속이 울렁거려예</li> <li>• 목으면 토할 것 같고</li> <li>• 신물이 잘 나지</li> <li>• 이가 없으이 밥씹기가 어려워</li> <li>• 물렁물렁하게 해서 씹어예</li> <li>• 너무 굵주린게 이빨새도 늘어져 인자 아무것도 못먹는데이</li> <li>• 저녁에 한심자고 나면 마아 잠이 안오거든</li> <li>• 이리저리 잠도 안와; 소주 그걸 먹어야 잠이와</li> <li>• 오줌이 쉬원케 안 나오는 기라</li> <li>• 눈이 침침해</li> <li>• 눈이 고이장히 안좋아지거든예</li> <li>• 눈은 안그렇더니 인자 하얀게 자꾸 끼고</li> <li>• 침침해</li> <li>• 안개가 낀것 같고</li> <li>• 눈앞에 점이 가로 막고 있어</li> <li>• 귀에 매미가 붙어 맨날 천날 울어</li> <li>• 귀에서 기차발통소리가 나요</li> <li>• 양귀가 풀핀것 것태</li> <li>• 새가 말려 들어가고</li> <li>• 입가새가 땡기는 기라</li> <li>• 모새 씹는 것 같애예</li> </ul>	<p>귀가 아프다</p> <p>치아가 아프다</p> <p>새부장기 기능이 약화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생하다가 폐병이 들어부러</li> <li>• 지금 폐가 안좋아 기침이 많이 나와 평생 골병이라</li> <li>• 중풍이 오고 합병증도 오고</li> <li>• 당뇨도 있고 무릎팍도 안좋고</li> <li>• 당뇨 그계 마아와 부러서예</li> </ul>	<p>만성질환이 발생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걸음 걸으면 힘이 빠져버려</li> <li>• 가파른데는 힘들어 못다니제</li> <li>• 다리가 힘이 없어가꼬 쫓아 나가다가 미끄러져 가고</li> <li>• 발이저러 작대기를 잡고 걷기는 하는데</li> </ul>	<p>보행이 불편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리를 통 못 웅그리요</li> <li>• 다리가 이젠 영 낫지 않아</li> <li>• 오른쪽 수족을 못 쓰지</li> <li>• 다리가 뻗뻗하고 시큰거려</li> </ul>	<p>사지움직임이 어렵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이 작년 다르고 올개 달라 ;이젠 말도 크게해도 안좋아</li> <li>• 목고 살랑게 내몸이 골병이 들어부러 이제 힘들어</li> </ul>	<p>점차 몸이 약해진다</p>

〈표 1-2〉 신체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

공통요소	가설적 정의	구조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리가 아프다.</li> <li>• 사지가 아프다.</li> <li>• 전신이 아프다.</li> <li>• 머리가 아프다.</li> <li>• 위가 아프다.</li> <li>• 눈이 아프다.</li> </ul>	심한 통증 호소	신체적 불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이 불편하다.</li> <li>• 사지움직임이 어렵다.</li> <li>• 점차 몸이 약해진다.</li> <li>• 세부 장기기능이 약화된다.</li> <li>• 만성질환이 발생되다.</li> </ul>	신체적 각기관의 기능저하	

2.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는 109개의 기술적 표현에서 17개의 공통요소가 3개의 가설적 정의와 1개의 구조적 정의로 범주화 되었다(표 2-1, 표 2-2 참조).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으로는 절망감과 수용 및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는 가설적 정의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혼자 있으니 마음이 아프고 눈물만 나니”, “그거 말로 어찌하노 인간 그리운건 말로 못하지”, “늙으면 어찌 이리 사람들이 그리울까”, “혼자 있고 들어앉아 있으면 징역살이여”, “내몸 아프면 누구하나 약 한사발 떠 줄사람이 없어” 등으로 혼자여서 외로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그 다음 요인으로는 “사는게 뭐 대책이 없어 한공기 끊어 먹고 그냥 살아”, “내 팔자는 마 다걸러 문기고 인자는 조질거 다 조지고”, “살았 무슨 희망이 있겠어”, “천한 목숨이 뭘 바라겠소” 등으로 삶의 단념을 표현하였다. 다음 요인은 “님을 이래 애먹이고 사니까 내가 어데 인간이오”, “아무런 능력없는 인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쓸모 없는 인간을 국가에서 먹여 살리느라 힘들지요”, “맨날언어 먹는 이것도 죄여”, “어찌다 죄를 졌는지 이리 죄 댓가를 받는갑다”, “죄가 많아 또 나쁜데 갈끼라” 등으로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벌어 목다가 들어 앉아 있어서 한심타 한심해”, “아이고 사람 팔자가 끝애와 이래 되부렀지”, “우짜다가 내가 이렇게 늙었노”, 내한 역사는 어디로 가고 병만 치루고 아무 보람없이”, “살맛도 안나고 살아가는 재미도 없어예”, “팔자도 이런 팔자가 있냐”등 무기력함과

늙고 병듦을 한탄하였다. “밤으로 문을 잠켜 동계로 나가 죽어도 누가 모를 끼라 생각커니 환장하겠어”, “적막강산이라 죽어도 모르지”, “혼자 있으니 아플 때는 걱정돼”, “마음이 구슬뜨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남보는 앞에선 눈물 안흘렸어”, “설번거 다 말해 무어하겠노”, “이렇게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나사서; 몰라 왜 우는지”등 혼자사는 것에 대한 불안과 서글픔을 호소하였다. 노인들은 “제일 걱정되는게 중풍이라”, “늙어 추잡해질 것 같아 그게 더 걱정이라”며 병듦을 불안해 하였다. “내복이 없어 그 애들 나무랄 필요도 없고”, “남편은 일찍 죽어 버렸어 모든게 내 팔자지”, “내 팔자가 왜 이런고 생각하면 기막히지”, “내 팔자가 이런고로 울다가 치어버리지”, “어찌 죽어도 팔자 이래 죽어도 팔자 팔자여”등으로 팔자를 자신의 처지로 알고 받아 들이고 있었다. “시어마이 업어다가 내버린다는데 이래 살아도 괜찮긴 괜찮아”, “나보다 못한 사람보면 이래 살아도 감사해”, “이태껏 이래 살았는데 없으면 없는대로 살지”등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 들이기도 하였다. 한편 “님 잘주고 갈라 목기 잘했고 그 은혜로해서 받는갑다”, “남에게 하도 많은 적선을 해서 한 이틀 앓다가 죽을 끼다”등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은연중 남은 복을 기대하였다. “빨리 가야 할텐데 정말 죽고 싶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지”, “오래살면 안돼 내 고생이다”,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죽는게 제일 편한건데”, “갈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내 욕심 부리던 뭘하노”,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마음이 편해”하면서 죽음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 받아 들일 준비를 하였다. 그러면서도 “약먹고 죽을 라고 몇번이고 마음 먹었네”라고 자살 충동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표 2-1>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

기술적 표현	공통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자 있으니 마음이 아프고 눈물만나니</li> <li>• 설이 돌아온디 이리구 막막하게 앉아서</li> <li>• 이세상에 망구 혼자요</li> <li>• 아플 때 물한잔 끓여 줄 사람조차 없어</li> <li>• 이래 안 찾아오면 사람 구경 할 수 있어야제</li> <li>•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허전해서</li> <li>• 딱 아프면 외로와요</li> <li>• 갈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li> <li>• 외로운거야 말로 다 할 수 있나여</li> <li>•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오</li> <li>• 그거 말로 어찌하노 인간 그리운건 말로 못하지</li> <li>• 늙으면 어찌 이리 사람들이 그리울까</li> <li>• 일가 친척도 없고 그저 혼자라</li> <li>• 혼자 있고 들어 앉아 있으면 정역살이여</li> <li>• 내 몸 아프면 누구하나 약 한사발 떠줄 사람이 없소</li> </ul>	혼자여서 외로워 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는게 뭐 대책이 없어 한고익 끓여 먹고 그냥 살아</li> <li>• 자식이 있나 돈이 있나 나이가 젊나 무엇을 바래고 살기를 원하겠노</li> <li>• 욕심도 없고 마아 이래 살지</li> <li>• 내 팔자는 마 다걸러 문기고 인자는 조질거 다 조지고</li> <li>• 세상이 귀찮아 가꼬 이래 안사요</li> <li>• 아들 죽고 딸 죽고 살 길이 귀찮아서</li> <li>• 아들 죽고나서는 마아 내 살기 싫데이</li> <li>•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도 없어</li> <li>•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li> <li>• 아무데나 쳐박혀 있다가; 내 앞길도 얼마 안남았거든</li> <li>• 천한 목숨이 뭘 바라겠소</li> <li>• 나혼자 이래 사면 무슨 희망으로 살것노?</li> <li>• 그냥 견디고 살아야제</li> </ul>	삶을 단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을 아래 애먹이고 사니까 내가 어데 인간이오</li> <li>• 무식해서 뭘 알아야제</li> <li>• 이 세상에 와서 아무 공한것 없고 오직 국가 종이고 노예니</li> <li>• 아무런 능력없는 인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li> <li>• 아무 쓸모 없는 인간을 국가에서 먹여 살리느라 힘들지요</li> <li>• 뭘 말을 할줄아나 뭐 활동성이 있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li> </ul>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맨날 얻어 먹는 이것도 죄여</li> <li>• 어찌다 죄를 졌는지 이리 죄 댓가를 받는 갑다.</li> <li>• 죄가 많아 또 나쁜데 갈기라</li> <li>• 내가 죄를 많이 지어 허리가 아프제</li> <li>• 넘 원망 안 할라 해도 내 죄가 큰 갑소</li> <li>• 자숙 못 낳은 죄로 참고 살았지</li> <li>• 죄많은 인생이여</li> </ul>	죄책감을 느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 내가 이렇게 되버렸고</li> <li>• 벌어 목다가 들어 앉아 있어서 한심타 한심해</li> <li>• 사람나고 돈 낳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리 살고 어떤 사람은 요리 살아야 되나 요 러 생각이 가끔 생각커지</li> <li>• 아이고 사람 팔자가 끝에 와 이래 되부렀지</li> <li>• 이제 모든게 자신이 없어</li> <li>• 나이가 있다 보이 아무것도 못하제</li> </ul>	무기력함을 한탄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짜다가 내가 이렇게 늙었노</li> <li>• 내한 역사는 어디로 가고 병만 치루고 아무 보람없이</li> <li>• 살 맛도 안나고 살아가는 재미도 없어예</li> <li>• 젊어서 여태 시어미 시아비 모시고 있었는데 늙어 이래 왜부렀어</li> <li>• 팔자도 이런 팔자가 있나</li> </ul>	<p>늙고 병듦을 한탄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으로 문을 잠궈 등계로 나가 죽어도 누가 모를 꺼라 생각커니 환장하것어</li> <li>• 적막강산이라 죽어도 모르지</li> <li>• 혼자 있으니 아플때는 걱정돼</li> <li>• 나이는 많고 인세 그리운게 사람밖에 없지</li> <li>•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지요</li> </ul>	<p>혼자 사는것이 불안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이 구슬뜨면 산으로 올라가는거야 남보는 앞에선 눈물 안흘렸어</li> <li>• 설번거 다 말해 무어하겠노</li> <li>• 설이 다와도 명절이 다와도 눈물나지</li> <li>• 혼자 있으면 올때도 많고</li> <li>• 이렇게 앉아 있으이 눈물이 나사서; 몰라 왜 우는지</li> <li>• 사는 것도 서글프고 쓸쓸해</li> </ul>	<p>서글픔을 느끼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 먹고는 몸이 안 아파야 될건데 걱정이라</li> <li>• 제일 걱정되는게 중풍이라</li> <li>• 늙어 추잡해질것 같아 그게 더 걱정이라</li> </ul>	<p>늙고 병듦이 불안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복이 없어 이렇게 되었나 싶어</li> <li>• 내복이 없어 그 애들 나무랄 필요도 없고</li> <li>• 사람이 닷복을 타야되요</li> <li>• 없는 부모밑에 태어나는께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갈라잡소</li> <li>• 남편은 일찍 죽어 버렸어 모든게 다 내 팔자지</li> <li>• 내 팔자가 이런고로 울다가 치어버리지</li> <li>• 팔자가 기구하지요</li> <li>• 내팔자를 생각하면 서럽소</li> <li>• 어찌 죽어도 팔자 이래 죽어도 팔자 팔자여</li> <li>• 혼자 살아갈 팔자라</li> <li>• 팔자가 안 맞아 재쳐로 갔지</li> <li>• 내가 팔자를 그렇게 타고나서 그런걸</li> </ul>	<p>자신의 처지를 팔자로 알고 받아 들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잘 살고 그러는 사람들 부러워는 안합니다.</li> <li>• 시어마이 업어다가 내버린다는데 이래 살아도 쁘찮긴 쁘찮아</li> <li>•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는 거지</li> <li>• 내 살아 생전에 맘편하게 살다가 죽지</li> <li>• 이래 살아도 내맘이 든든하기라</li> <li>• 나보다 못한 사람보면 이래 살아도 감사해</li> <li>• 이태껏 이래 살았는데 없으면 없는데로 살지</li> <li>• 욕심 부리지 말고 주면 주는대로 안주면 안주는 대로 그제 제일이다</li> </ul>	<p>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넘 잘 주고 갈라 목기 잘했고 그 은혜로해서 받는갑다</li> <li>• 남한테 약하게 한 뱀이 없어</li> <li>• 남한테 요만한 소리도 안듣고 안하는 사람이요</li> <li>• 남한테 해꼬지 안해요</li> <li>• 남에게 하도 많은 적선을 해서 한 이를 앓다가 죽을꺼다</li> </ul>	<p>선행을 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빨리 가야 할텐데 정말 죽고 싶어</li> <li>• 어서 죽어야 할텐데</li> <li>• 죽어야 되는데 안죽으니까 어렵지</li> <li>• 죽기만 얼른 하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지</li> <li>• 가뭇면 좋은데 안 죽으니 걱정이지</li> <li>• 안 죽으니까 내이려고 살지</li> <li>• 죽잖아 사는기라고 살지</li> <li>•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지</li> <li>• 오래살면 안돼 내 고생이다</li> <li>•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죽는게 제일 편한건데</li> <li>• 빌어 먹다가 안되면 물에 빠져 죽던지</li> <li>• 이래 들어 앉아 있다 이래 죽어야지</li> </ul>	<p>죽음이 빨리 오기를 원하다</p>

〈표 2-2〉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

공통요소	가설적 정의	구조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자여서 외로워한다.</li> <li>• 삶을 단념한다.</li> <li>•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한다.</li> <li>• 죄책감을 느끼다.</li> <li>• 무기력함을 한탄하다.</li> <li>• 서글픔을 느끼다.</li> <li>• 혼자사는 것이 불안하다.</li> <li>• 늙고 병들어 불안하다.</li> </ul>	<p>절망감</p>	<p>정서적 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처지를 팔자로 알고 받아들이다.</li> <li>•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다.</li> <li>• 선행을 하다.</li> </ul>	<p>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음이 빨리오기를 원하다.</li> <li>•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다.</li> <li>• 자살을 시도하다.</li> </ul>	<p>죽음에 대한 생각</p>	

3. 지지체계와 관련된 경험

지지체계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는 124개의 기술적 표현에서 26개의 공통요소가 8개의 가설적 정의와 1개의 구조적 정의로 범주화 되었다(표 3-1, 표 3-2참조).

지지체계와 관련된 경험은 가족과의 교류, 절대자에 대한 사고, 경제적 곤란, 공적 부조에 대한 기대, 의료수혜에 대한 기대, 이웃과의 교류, 여가선용 및 부적절한 환경에 대한 불만의 가설적 정의로 확인하였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자식들이 빚을 도와줘 아무것도 없어 저들도 어려워”, “지깍 맞차 놓으면 다 소용없지 넘보다 못해”,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 자식은 정말 필요없어” 하며 자식에게 기대를 갖지 않음을 표현하였고, 그 다음 요인으로는 “전화 한통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꺼고”, “칠십이 되도 나는 이적지 생일상 한번 못 얻어 먹었어”, “아들은 단지 제사때 와서 잔 한잔 먹고 매느리는 안와”, “늙으니까 마 딱 싫은 모양이다; 그래 집도 뺏기고 살림도 다뺏기고”, “피도 살도 안섞였는데 씨이미 대접할 필요가 있나 카는 식이제”등 자식에게 기대를 갖지 않음 면서도 자식에게 푸대접을 받아 속상해 하였다. 그런가 하면 “자식이 없으니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되요”, “자식이라도 있으면 어느 몸에 나든지 놓으면 끝에는 안이럴까 싶어”, “자숙 없어 끌리는 그것 같이 설운게 없어”, “자식을 못 낳으니 어디 한탄할 데도 없고”등 자식이 없음에 대하여 한탄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 다음 요인으로는 “자식이 피나게 노

동해서 벌은 돈인데 그 돈을 쓰면 가슴이 아퍼, 그래 안쓰고 못아났지”, “방 세주라고 돈을 갖다 줄때는 내가 없었으면 저거가 이걸 가지고 애를 안먹을 건데 “하면서 자식에게 부담을 주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숙이 아무리 애먹여도 부모 혼자 있으면 심신타 아이오”, “남들이 자석이 있으면 덜할꺼고”, “고생이나 안하는지 생각하면 목이 메키 가지고 밥 같은것 다 안넘어가요”하면서 자식이 있어 위로를 받으며 한편 자식을 염려하였다. 한편 다음 요인으로는 “있어야 동기간도 있지 없어야 동기간도 없어”라고 형제로부터 도움 받지 못함을 섭섭해 하였다. 오히려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거숙할 때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요”, “몇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은 하나님에 다 보살펴 주신 덕이다”, “하나님 아버지 절로 불쌍히 여겨 주이소” 하면서 신앙에서 편안함을 얻고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감사하였다. 그러나 “자식하나 살려 달라고 요절복통하고 불도를 믿었는데 부처님도 쓸데 없다하고 안믿는거야 죽을 때 천주교로 가야지”, “아들이 죽고나니 아무것도 믿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혼자 있는데 믿으면 뭘해” 하면서 신앙적인 갈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집에서 얻어 묵고 저집에서 얻어 묵고 그래 삼니더, 한참 얻어 묵으면 소금만 먹어도 되는디”, “집세 요기이나 젤로 막막해”, “집세가 거덜이나가꼬 내가 쫓겨나가게 됐어”, “사는게 이리 고통스럽습니다; 아무 벌어는 돈이 없으께”, “만날 기를 못피지”등으로 의식주의 곤란함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들 “절에 갈라케도 돈

〈표 3-1〉 지지체계와 관련된 경험

기술적 표현	공통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식들이 뭇을 도와줘 아무것도 없어 지들도 어려워</li> <li>• 자식 있어도 불잘 없어요</li> <li>• 지적 맞차 놓으면 다 소용없지 넘보다 못해</li> <li>• 저저 사는 꼬라지 보면 딱거 아무 희망없어</li> <li>•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자식은 정말 필요없어</li> <li>• 자식들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잘 살면 어디 그러나 어디</li> <li>• 딸래집은 넘집이요 아무리 잘해 줘도 반갑지 않아요</li> <li>• 딸들이 와봤자 편지도 않혀</li> <li>• 자식이 아무리 좋다 좋다해도 할마이만 못하오</li> </ul>	자식에 기대를 갖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런저런 소리 다듣고 있으면 내속이 상하오</li> <li>• 1년내 가도 어디 전화를 하나</li> <li>• 생전에 전화 한통 없어</li> <li>•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끼고</li> <li>• 이태껏 손주봐주고 있었는데 이제 지들이 날 안좋아혀</li> <li>• 나가 미역국도 못얻어 묵고 생일상도 못얻어 묵음께로</li> <li>• 칠십이 되도 나는 이적지 생일상 한 번 못 얻어 먹었어</li> <li>• 돈달라는 소리 안할 터인데 뭐가 겁이나서 놀러 못올까</li> <li>• 내가 돈이 있으면 많이 찾아 올겐데</li> <li>• 아들은 단지 제사때 와서 잔 한 잔 먹고 매느리는 안와.</li> <li>• 자식들은 절로 권줄 알제 다 그러제</li> <li>• 장가 딱 간꺼네 그달에 고마 마음이 싹 바끼뿌리데</li> <li>• 그래 키웠는데 그기 아니라</li> <li>• 늙으니까 마 딱 싫은 모양이다 ; 그래 집도 뺏기고 살림도 다뺏기고</li> <li>• 피도 살도 안섞었는데 씨이미 대접할 필요가 있나 카는 식이제</li> <li>• 내가 자숙키운 공이 없으께 마야 이러타아이요</li> </ul>	자식에게 푸대접 받아 속상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숙이 없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니께 이래 덧 없소</li> <li>• 내 자식이면 그라겠나 다 소용없대이 난 알라도 배도 못했고 뭐이래 지내제</li> <li>• 내 속으로 난 자숙같으면 어떡카든지 들바다라도 불껴 아이가</li> <li>• 자식이 없으니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되요</li> <li>• 자식이라도 있으면 어느 몸에 나든지 놓으면 끝에는 안 이럴까 싶어</li> <li>• 자숙 없어 풀리는 그것 같이 설운게 없어예</li> <li>• 자식을 못 남겨니 어디 한탄할 데도 없고</li> <li>• 차라리 내가 죽고 자식이 살았으면 낫지 생각들어</li> <li>• 자석을 낳아 살아야지 쪼트머리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li> <li>• 아리고 산바람 불어가꼬 우리 집구석 망하고 내아들 뺏아가 버렸어</li> <li>• 혼자 있는것 보다 며느리라도 있으면 밤한술이라도 얻어 먹고 할텐데</li> </ul>	자식이 없음에 대해 한탄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석이 피나게 노동해서 벌은 돈인데 그 돈을 쓰면 가슴이 아퍼, 그래 안쓰고 못아났지</li> <li>• 자석 마음 괴롭히면 안된다 아이요 못먹어도 잘 먹은체 하고 있어야지</li> <li>• 방세주라고 돈을 갖다 줄 때는 내가 없었으면 저거가 이걸 가지고 애를 안먹을 낀데</li> <li>• 저거는 같이 살자하는데 내가 싫은기라</li> <li>• 딸네들이 방세 보태쓰라고 주는게 미안혀</li> </ul>	자식에게 부담을 주어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아든둥 그것도 자식인데 기다리초</li> <li>• 자숙이 아무리 애먹여도 부모 혼자 있으면 심신타 아이요</li> <li>• 남들이 자식이 있으면 덜할께고</li> <li>• 그것들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 ; 딸도 쁘찮아요</li> <li>• 저저들 내뺏으면 어저 뒷겠노</li> </ul>	자식이 있어 위로가 된다

기술적 표현	공통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생이나 안하는지 생각하면 목이 메키 가지고 밥 같은것 다 안넘어가요</li> <li>남동성 다 소용없어</li> <li>형제간이 무슨 소용있지요</li> <li>있어야 동기간도 있지 없어야 동기간도 없어</li> </ul>	<p>자식을 염려하다</p> <p>형제로 부터 도움받지 못해 섭섭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li> <li>마음이 거스랄때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li> <li>예수 믿으라 전도하제 참 마음이 편해요; 한번 믿으보소</li> <li>책읽고 찬송가 부르고 마음이 편치요</li> <li>요로몸 질병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 하나님이 부르면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제 단견 마없다.</li> </ul>	<p>신앙으로 편안함을 얻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li> <li>몇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은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신 덕이다.</li> <li>몸이 아파서 그렇지 예수 믿은게 그것만큼 더 좋은게 있디나</li> </ul>	<p>절대자에게 감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님 아버지 절로 불쌍히 여겨주이소</li> <li>마음도 섭섭하고 그래 교회에 다니제</li> </ul>	<p>절대자에 의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 교회 다닐라 케도 담배 끊고는 못가겠데이</li> <li>교회 댕기다 내몸이 이력이 안가</li> <li>자식하나 살려 달라고 애절복통하고 불도를 믿었는데 부처님도 쓸데 없다하고 안믿는거야 죽을때 천주교로 가야지</li> <li>아들이 죽고나니 아무것도 믿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혼자 있는데 믿으면 뭘해</li> </ul>	<p>신앙적인 갈등을 갖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집에서 얻어 묵고 저 집에서 얻어 묵고 그래 삽니다; 한참 얻어 묵으면 소금만 먹어도 되는데</li> <li>시장은 가지 않아 가도 못하고 복지관에서 주는거 일주일씩 먹고</li> <li>내가 목욕은 못해 집에서 하거든 돈이 드니께</li> <li>쌀주고 연탄값주께 억지로 사는거지</li> <li>5,000원짜리 방안고 갖고 사이 기고 망척하네</li> <li>뭘로 방세를 주나 쉽게 한 달이 버떡버떡해</li> <li>그놈의 방세 때문에 저달에 보태고 나면 이달에 또 내야하고; 그제 좀힘들지 짐세 요기이 나 절로 막막해</li> <li>집세가 거덜이 나가꼬 내가 쫓겨나가게 됐어</li> </ul>	<p>의식주가 곤란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는게 이리 고통스럽습니다; 아무 벌어는 돈이 없으께 만날 기를 못피지</li> </ul>	<p>사기가 저하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에 갈라케도 돈이 있어야제</li> <li>교회에 어데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꺼</li> <li>예수 믿는데도 돈을 가지고 가야제</li> </ul>	<p>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돈이 없어야 약도 못먹고 가슴이 갑갑데이</li> </ul>	<p>치료를 받지 못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아들 안있소</li> <li>나라에서 동회에서 쌀주고 복지관에서 반찬주고 그걸 먹고 안사나</li> <li>이렇게 조식먹고 하는 것도 고마운데; 복지관에서나 동회에서나 참 너무너무 고마워</li> <li>복지관이나 동회나 얼마나 자식보다 낮고 친척보다 나아</li> <li>내가 세가 빠지게 갚아도 공을 못갚겠는데; 눈도 복지관 처녀가 만나사렸고 고마바 싸서</li> <li>나라에서 주는 것이 고맙지요</li> <li>좀 도와 주시려면 한달에 짐세만 좀 보태주면 좋겠네</li> <li>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영락없이 죽지</li> </ul>	<p>공격도움을 희망하며 감사한다</p>

기술적 표현	공통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뭘때와야 들어준데 큰병원에 인제부터 안갈래</li> <li>• 공짜배기로 해준다더니 이따우나 보호자 없다고</li> <li>• 화가나서예 몇번 돌아올뻔 했어예 병원에 갈때마다 야단을 쳐예 지랄로 하고 약타러 갈라하면 심장이 상해서</li> <li>• 보건소서 주는 카드로 탄계 그게 그 지랄이라</li> </ul>	의료기관의 무시에 분노 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에 10원도 안들어 자꾸 오라카는데 미안해서</li> <li>• 경로의원 의사가 돌인데 참 고맙아요</li> <li>• 보건소에서 약도 갖다 주고 고맙습니다</li> </ul>	의료수혜에 감사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얻어 먹으러 다니는게 싫어서</li> <li>• 남 도움받는 것도 부담스럽소</li> <li>• 남들 밥먹으면 피해 나오고</li> <li>• 남한테 얻어 먹는기'이게 아슬다' '저게 아슬다' 이랄 수 없고</li> <li>• 남 집에 살아도 내 거처하는데 가서 설로 새야</li> <li>• 마음에 찌이는 것은 국가서 타먹는 것이 미안치 뭐</li> </ul>	주변의 도움이 부담스럽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무 곳에도 가고 싶지 않아; 고향도 가고 싶지 않아</li> <li>• 이것 저것 안보고 안 듣고 이래 사이꺼니 편해</li> <li>• 사람오는 것도 귀찮고 이야기 하는게 싫어</li> <li>• 사람들이 너무와 벽적거리는 것도 싫고 : 남의 말 듣기도 싫고</li> </ul>	스스로 주변과 단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옆집 사람이 봐주는 뭘봐 쥐</li> <li>• 모질어유 아파도 들보다 보지도 안해요; 내꺼 없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li> </ul>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에서 가끔 들바다 보고 있지요</li> <li>• 교회 집사님 고마비요 김치 같은 것 가져오고</li> <li>• 저는 전부 남한테 얻으게 반이지</li> </ul>	이웃으로부터 도움받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디 잘 나맹기도 못하고 그냥 텔레비보고 누워있소</li> <li>• 평생 테레비 보다가</li> <li>• 라디오 듣고 테레비 나오면 보고</li> <li>• 성경책 보다가 뭐 그러다 시간 다 가빠계</li> <li>• 하나님 믿고 사계 기도가 내 생활이고 라디오 틀어 놓고 말씀 듣고</li> <li>• 염불이나 만날 틀어 놓고 책이나 읽지</li> </ul>	TV를 보면서 소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몸이 늙고 이렇게 병이 들어 어디 가기도 그렇고 만날 방구석에 들어 앉았고</li> </ul>	스스로 목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무 높으니까 어디 다니기가 겁나요</li> <li>• 내리막에서는 빨리 내려가야 할때가 있는데 그게 잘안래</li> <li>• 제일 힘든 거는 빨래 하기가 제일 힘든거지 물이 잘안나와</li> <li>• 언제 여기가 뜰겨 개간이 될지 몰라요</li> <li>• 방이 추워 죽겠어</li> <li>• 여기라도 살아야 할건데 쫓겨날꼴봐 무서워</li> </ul>	집에서 하는 일없이 보낸다
	부적절한 환경을 불평하다

이 있어야제”, “예수 믿는대도 돈을 가지고 가야제” 하면서 호소하였다. 역시 “돈이 없어이 약도 못먹고 가슴이 갑갑대이”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공적 도움에 감사로 “대통령 아들 안있소”, “복지관이나 동회나 얼마나 자석보다 낫고 친척보다 나아”, “나라에서 주는 것이 고맙지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영락없이 죽지”등으로 공적 도움을

무한히 감사하였다.

한편 의료기관의 무시나 의료수혜에 대해서 “화가 나서예 몇번 돌아올뻔 했어예 병원에 갈때마다 야단을 쳐예 지랄로 하고 약타러 갈라하면 심장이 상해서”, “병원에 10원도 안들어 자꾸 오라카는데 미안해서”, “남 도움받는 것도 부담스럽소”하면서 분노와 감사를 동시에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이것 저것 안

〈표3-2〉 지지 체계와 관련된 경험

공통요소	가설적 정의	구조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식에게 기대를 갖지 않는다</li> <li>• 자식 없음에 대해 한탄한다</li> <li>• 자식으로 부터 푸대접받아 속상하다.</li> <li>• 자식에게 부담을 주어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li> <li>• 자식을 염려한다</li> <li>• 자식이 있어 위로가 된다.</li> <li>• 형제들로부터 도움받지 못해 섭섭하다.</li> </ul>	가족과의 교류	지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앙으로 편안함을 얻는다.</li> <li>• 절대자에게 감사한다.</li> <li>• 절대자에게 의지한다.</li> <li>• 신앙적인 갈등을 갖는다.</li> </ul>	절대자에 대한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식주가 곤란하다.</li> <li>• 사기가 저하되다.</li> <li>•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다.</li> <li>• 치료를 받지 못한다.</li> </ul>	경제적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도움을 희망하며 감사하다.</li> <li>• 의료기관의 무시에 분노하다.</li> <li>• 의료수혜에 감사하다.</li> </ul>	공적부조에 대한 기대 의료수혜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스로 주변과 단절하다.</li> <li>• 주변의 도움이 부담스럽다.</li> <li>•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li> <li>•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li> </ul>	이웃과의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를 보면서 소일한다.</li> <li>• 스스로 묵상한다.</li> <li>• 집에서 하는일 없이 보낸다.</li> </ul>	여가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절한 주거환경을 불평하다.</li> </ul>	부적절한 환경에 대한 불만	

보고 안듣고 이래 사이꺼니 편해”, “사람 들이 너무 와 벽적거리는 것도 싫고 ; 남의 말 듣기도 싫고”, “모질어요 아파도 들보다 보지도 안해요 ; 내꺼 없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전부 넘한테 얻은게 반이지”등으로 스스로 주변과 단절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지 못해 섭섭해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주로 소일하는 일은 “어디 잘 나뎡기도 못하요 그냥 텔레비보고 누워있소”, “하나님 믿고 사께 기도가 내 생활이고 라지오 틀어 놓고 말씀 듣고”, “내 몸이 늙고 이렇게 병이 들어 어디 가기도 그렇고 만날 방구석에 들어 앉았고”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있었다. “너무 높으니께 어디 다니기가 겁나요”, “여기라도 살아야 할건데 쫓겨날까봐 무서워”, “언제 여기가 뜯겨

개간이 될지 몰라”등으로 부적절한 환경을 불평했다.

#### 4. 과거회상과 관련된 경험

과거회상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는 37개의 기술적 표현에서 10개의 공통요소가 3개의 가설적 정의와 1개의 구조적 정의로 범주화 되었다(표4-1, 표4-2참조).

과거회상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는 과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회상과 과거에 대한 후회 및 과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회상으로 가설적 정의를 확인하였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남편이 죽은게네 춤추겠데”, “남처럼 지내고 원수같이 지냈어”, “죽음이 시원

하고 그때는 세상만사가 내세상 같고 참 좋더라”, “남편이 죽어도 죽어도 보기싫어 도망와 버렸어”하면서 남편과 정이 없었음을 가장 많이 회상하였고 옛날에 가난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음을 표현하였다. 그 다음 요인으로 “세상에 방에서 밥한번 못먹어보고 천상 부엌에서 살았지”, “시집을 가서 물에 간장타서 먹었지”로 표현하였다. 다음 요인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시기에 “아들 못남아 시어미한테 야단 많이 들었지”하면서 회상하였고 “내가 애들 공부를 못시켜서 제일 그걸 못했어 70이 들어도 하나 해놓은게 없어”, “아버지는 나를 ‘핵교 보낼까’하셨지만 지금 생

각하면 ‘왜 안 했는가’ 후회가 되요”, “때려 죽일까봐 그제 겁나서 못갔어 고마 도망을 못가고 그냥 살았지 그냥 살았는데”, “이런 좋은 세상에 식모살이만 하는 것 보다는 돈있는 영감이나 하나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하면서 지난일을 후회하였다. 한편 “부갯집 딸이 있어 천석군 딸이래”, “젊을때는 얼굴에 티끌하나 없었어”등으로 젊어서 잘살고 예뻐고 건강하였음을 회상하였다. 또한 “죽은 양반보고 싶어; 사람 참 좋았제”, “젊을때 내 참 영리했제”, “며느리가 착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했는데”라고 가족들이 잘 대해 주었음에 대해서 회상하였다.

〈표 4-1〉 과거회상과 관련된 경험

기술적 표현	공통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살 그래도 달래길 하고 그랬으면 되지 않겠나 하여튼 웬수 같았어니까</li> <li>• 부부에 정이 없었거든</li> <li>• 남처럼 지내고 원수같이 지냈어</li> <li>• 욕을 다하고 뺨도 때리고 어쩐지 보기가 싫어</li> <li>• 남편이 죽은게내 춤추겠네</li> <li>• 죽음이 시원하고 그때는 세상만사가 내세상 같고 참 좋더라</li> <li>• 죽어도 팔도 보기싫고 말하는 소리도 듣기싫고</li> <li>• 남편이 죽어도 죽어도 보기싫어 도망와 버렸어</li> </ul>	남편과 정이없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복서 남한 와가지고 고생고생.. 말할 수도 말못해요</li> <li>• 장사도 했는데 다 말아먹고 넘어집 댕기고 그랬어</li> <li>• 내 힘들었다는 얘기는 말할 수도 없어 힘들었지</li> <li>• 세상에 방에서 밥한번 못먹어보고 천상 부엌에서 살았지</li> <li>• 시집을 가서 물에 간장타서 먹었지</li> </ul>	옛날에 가난으로 고생을 많이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들 못남아 시어미한테 야단 많이 들었지</li> </ul>	자식이 없어 서러움을 많이 당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나간 일이 모두 후회스러워</li> <li>• 내가 애들 공부를 못시켜서 제일 그걸 못했어 70이 들어도 하나 해 놓은게 없어</li> <li>• 재혼해서 그 나이에 살아도 살텐데</li> <li>• 아버지는 나를 ‘핵교 보낼까’하셨지만 지금 생각하면 ‘왜 안했는가’ 후회가 되요</li> <li>•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말라 들어갔을까 그마 떼주고 마 어디 갔어면 뭘까 도망을 가던지</li> <li>• 때려 죽일까봐 그제 겁나서 못갔어 고마 도망을 못가고 그냥 살았지 그냥 살았는데</li> <li>• 내 팔자 가스나들 잘 못 치아가지고 내가 늙어가 이래 고생인가 내 참 미쳐요</li> <li>• 영감도 못 얻어가고 데이트도 한 번 못하고</li> <li>• 이런 좋은 세상에 식모살이만 하는 것 보다는 돈있는 영감이나 하나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li> <li>• 인자 생각하면 헛되이 살았어 돈을 좀 모았어야 하는데</li> <li>• 젊을 때 잘 못했지 좀 모아 냈어면 좋았을 걸</li> </ul>	지난 일들이 후회 스럽다

기술적 표현	공통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갓집 딸이었어 천석군 딸이래</li> <li>• 예전엔 일꾼두고 농사 지을 때는 큰머슴, 걸머슴, 소도 있었고</li> <li>• 예전에 우리집 살림이 짹짹했지</li> </ul>	<p>젊어서는 잘 살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 젊었을 때는 곱다고 했지</li> <li>• 이전에는 모두 날보고 멋쟁이라고 했어</li> <li>• 젊을 때는 얼굴에 티끌하나 없었어</li> </ul>	<p>젊어서는 예뻐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을 때는 몸 좋았지</li> <li>• 장사하고 다닐때 그때가 젊었으니까 좋았어</li> </ul>	<p>젊어서는 건강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은 양반 보고 싶어 ; 사람 참 좋았제</li> <li>• 그런 분은 없오 재혼할려고 신랑 구할려고 해도 그런 신랑이 없오 인물도 잘나고</li> </ul>	<p>남편은 좋은 사람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을 때 내 참 영리했제</li> </ul>	<p>젊어서는 영리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머느리가 착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했는데</li> </ul>	<p>가족들이 잘 대해 주었다</p>

<표4-2> 과거회상과 관련된 경험

공통요소	가설적 정의	구조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과 정이 없었다.</li> <li>• 옛날에 가난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li> <li>• 자식이 없어 서러움을 많이 당했다.</li> </ul>	<p>과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회상</p>	<p>과거회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일들이 후회스럽다.</li> </ul>	<p>과거에 대한 후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어서는 잘 살았다.</li> <li>• 젊어서는 예뻐다.</li> <li>• 젊어서는 건강했다.</li> <li>•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li> <li>• 젊어서는 영리했다.</li> <li>• 가족들이 잘 대해 주었다.</li> </ul>	<p>과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회상</p>	

### 5. 소망과 관련된 경험

소망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는 21개의 기술적 표현에서 7개의 공통요소가 2개의 가설적 정의와 1개의 구조적 정의로 범주화 되었다(표 5-1, 표 5-2참조).

소망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는 실현되지 못한 삶에 대한 소망과 자기 만족으로 가설적 정의가 확인되었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저녁 잘 먹고 자는 잠에 갔으면”, “죽을 때 안아프고 너한테 신세 안지고 죽어야 할텐데”등 편안하게 죽고 싶음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죽는날까지 건강하다가 가면 쓰겠

다”, “소뼈다귀나 사갓꼬 고아 먹었으면”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다음 요인은 “새로 태어나 새 세상이나 봤으면 좋은 부모 만나서 좋게 커고 공부나 해가지고 이 세상에 공부가 소원이끼네”, “아들 하나 잘 되는 것이오 “하면서 새로 태어나 자식 잘되는 것을 바랬다. 신체적 불편으로 인하여 “안 나올 망정이라도 병원에 가고싶지”,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고도 싶어”하면서 병원의 치료를 갈망하였다. 그러면서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가는게 내 바램이지 딴것 뭐”라고 크게 바랄 것이 없다고 하였다.

<표 5-1> 소망

기술적 표현	공통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 안 아프고 죽었으면</li> <li>• 죽을 적에는 자는 잠에 가고</li> <li>• 인제 죽을 것만 바래야지</li> <li>• 자는 잠에 가야 할 텐데</li> <li>• 편안하게 죽는 것 밖에는</li> <li>• 저녁 잘 먹고 자는 잠에 갔으면</li> <li>• 죽을 때 안 아프고 넘한테 신세 안 지고 죽어야 할텐데</li> </ul>	편안하게 죽고 싶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발 나좀 낮아줘</li> <li>• 죽는 날까지 건강하다가 가면 쓰겠다</li> <li>• 몸만 안 아프면</li> <li>• 소뻐다귀나 사가고 고아 먹었으면</li> </ul>	건강하게 살고 싶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나 해가지거 넘한테 갈세 안받고 그거 밖엔</li> <li>• 새로태어나 새세상이나 봤으면 좋은 부모만나서 좋게 키고 공부나 해가지고이 세상에 공부가 소원이끼네</li> </ul>	새로 태어나 살고 싶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들하나 잘 되는 것이요</li> <li>• 이거만 시집보내면 한도 원도 없을꺼다</li> </ul>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내 자식이 잘되어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 나올 망정이라도 병원에 가고 싶지</li> <li>•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고도 싶어</li> <li>• 이도 좀 해놓어야 될 건되...</li> </ul>	병원의 치료를 받고 싶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좀 더 오래 살았으면...</li> </ul>	더 오래 살고 싶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가는데 내 바람이지 딴 것 뭐</li> </ul>	크게 바랄게 없다

<표 5-2> 소망

공통요소	가설적 정의	구조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안하게 죽고 싶다</li> <li>• 건강하게 살고 싶다</li> <li>• 새로 태어나 살고 싶다</li> <li>•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li> <li>• 병원의 치료를 받고 싶다</li> <li>• 더 오래 살고 싶다</li> </ul>	실현되지 못한 삶에 대한 소망	소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게 바랄게 없다</li> </ul>	자기만족	

## V. 논 의

### 1. 신체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

노인의 신체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에서는 신체적 불편감으로서 심한 통증과 각 신체기관의 기능저하로 나타났다. 통증의 부위로는 허리, 사지, 전신, 머리, 속, 눈, 입, 귀, 치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장기

기능이 약화되거나 만성질환이 발생하며 보행장애와 사지 움직임이 어렵고 점차 몸이 약해진다는 전반적인 신체기관의 기능저하 현상을 보여주었다.

Brunner 등(1970)은 노화현상과 약화된 저항력에 대한 연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중에 75%가 한가지 혹은 두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에 걸려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양로원 거주 노인들의 기본욕구에 관한 김정순(1984)의 연구에서 보면 신체적 문제로서 치아장

애, 소화장애, 청력장애, 영양불량 등이 연령이 높아 질수록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며 김정자(1989)의 연구에서는 시설 거주 노인의 신체적 주 효소들의 순서가 시력, 피로도, 근육골격계, 심장혈관계, 질병 발생 빈도, 생활습관, 소화기계, 신경계, 호흡기계, 피부계, 비노생식기계, 과거의 병력 순서로 나타났다.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건강상태 조사를 실시한 박정은 등(1989)의 연구에서는 신경통이 전체노인에서 제일 많았고 노환, 전신쇠약, 관절염, 혈압문제, 변비 및 소화기계, 불면 및 기억력 감퇴의 순으로 신체적 불편감이 나타났으며 김영숙(1986)의 연구에서는 복지시설 노인의 신체적 질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20.7%로 가장 많았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체적 불편감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내용중 통증에 관한 내용이 신경통 또는 관절염 등에 기인한 내용 등이며 전체적인 장기 기능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만성질환과 노화등으로 인해 원활한 신체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나타나는 내용이다.

따라서 노년기 신체관리나 건강관리의 측면은 노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저하된 기능에 따른 치료 및 간호이고 또한 통증에 대한 관리와 간호중재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노인들이 경제력에 구애받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의 확대와 노인질환이나 건강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나 간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통증관리에 따른 물리치료 및 운동요법을 보급해 줄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의 확충이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건강 자원인 각종 보건 의료시설에 운동요법 클리닉을 개설하여 자자의 선택에 의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거나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노인정, 마을회관, 공원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간단한 물리치료나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

노인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에서는 절망감과 수용,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절망감은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많았고, 삶의 단념,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 죄책감, 무기력함, 늙고 병듦에 대한 한탄과 불안, 서글픔의 순이었다. 이들 노인의 절망감은 대상자 모두가 영세 독거노인

이어서 더욱 현저하게 두드러졌다. 이는 조유향 등(1988)의 노인들의 정서상태 조사에서 쓸쓸하고 외롭다, 불안하다, 의기소침하다, 절망적인 기분이다 등으로 불안정한 정서상태를 보인 것과 유사하였다. 노인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신체적 질병이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에, 혼자인 경우에 더욱 외롭고 절망감을 느낀다고 하였다(조유향, 1988). 결국 노화과정에서 의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 스스로가 위축되고 자신의 욕구가 좌절될때 특히 절망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절망감은 노화와 죽음을 재촉하게 되므로 노인의 질적인 삶을 위해서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인 집단회상을 통한 심리요법과 오락활동을 권장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Fry(1983)는 구조적 회상요법이 노인의 인지기능 수행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전시자(1989)는 집단회상이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는데, 특히 집단회상요법은 노인의 사회성과 정서적 강화를 제공하며, 자아개념을 증진시키고 집단의 결속력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는 바, 영세 독거노인들을 위한 집단심리요법으로의 회상요법은 과거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신인지과정, 정서과정, 언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영세 독거노인들의 절망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노인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의 수용에 대한 공통요소는 자신의 처지를 팔자로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행을 행함이었다. 이는 그들의 처지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므로 스스로 위로하고 그래도 은혜로 생각하며 오래 끌지 않고 죽을거라는 위안과 삶을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낸 바, 타연구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은 영세 독거노인들의 정서적 삶의 경험의 한 단편이다. 이는 노인간호의 중요한 일면이 되기도 하여 노화과정을 삶의 과정으로 보듯이 정서적 문제도 삶의 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완화하도록 격려하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리라 본다. 죽음에 대한 생각의 공통요소는 죽음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 때로는 자살충동을 느끼기도 하나, 결국에는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는 김정순(1984)의 연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노인들은 죽음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친근하게 되며 어느 정도의 기대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대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생각의 간호중재로는

회상요법이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회상은 즐겁고 아  
름다웠던 과거경험을 재음미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  
기하므로 자부심과 성취감을 갖게 되고 고통스러운  
과거경험과 현실을 미화시키고 합리화할 수 있어, 회  
상의 결과 우울감은 감소되고 자아존중감이 증가되어  
고통이 완화될 수 있으며 인지적 재구성을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 3. 지지체계와 관련된 경험

노인의 지지체계와 관련된 경험에서는 가족과의 교  
류, 절대자에 대한 사고, 경제적 곤란, 공적부조에 대  
한 기대, 의료수혜에 대한 기대, 이웃과의 교류, 여가  
선용, 부적절한 환경에 대한 불만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교류에서는 자식이 없음을 대해 한탄하거나  
자식에게 부담을 주어 미안하다는 사람도 있었으나  
자식에게 기대를 갖지 않는다거나 자식에게 푸대접을  
받아 속상하다는 자식에 대한 불만이 더 큰 비중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웃과의 교류에서는 스스로  
주변과 단절한다, 주변의 도움이 부담스럽다 등이 많  
았으며 여가선용에서는 TV를 보면서 소일 하거나 혼  
자서 생각한다든 편이었다.

May(1967)는 인간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관계를  
갖지 못할 때 의사소통이 안되고 공허하고 쓸쓸하며  
무의미해져 소외를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Dean & Lin(1977), McDonald등(1970)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가족이 가장 효  
과적인 집단이라고 하였고, Cobb(1976)은 인생의 종  
말에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지지는 대부분 가족구성원  
들로부터 획득한다고 하였으며 가족 다음으로 노인들  
에게 중요한 지지체는 친구 또는 이웃인이라고 하였  
다.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가족 지지만큼  
친밀하거나 장기적이진 않지만 가족 지지를 받지 못  
하는 경우에 대응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졌는데  
(Cantor 1979 ; Johnson 1983) 본 연구의 대상자들인  
영세 독거노인들은 가족들의 지지를 기대하지 않거나  
자식에게 푸대접을 받아 속상해 하고 있으며 이웃과  
의 교류에 있어서도 스스로 주민들과 단절을 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지지체계와의 상  
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로인해 삶의 만족이 저하되고 부정적 정서 경험을 하  
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절대자에 대한 사고에서는 신앙으로 편안함을 얻는

다, 절대자에게 감사한다, 절대자에게 의지한다 등의  
긍정적인 면이 대부분이었다. 김행자(1974), 한덕순  
(1975)등은 종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 현  
생활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노인들이 종교를 가짐  
으로써 대인관계가 많아지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  
의 존재가치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결과라고 하였다.

경제적 곤란에서는 의식주가 곤란하다, 사기가 저  
하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안홍자(1975)는 경제  
력이 없어진 노인들은 과거의 지배적 역할에서 의존  
적 역할로 변하게 되어 심리적 우울과 불안은 더욱  
심하게 된다고 하였다. 대상자들의 경우 경제적 상실  
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좌절시키고 인간 존엄성 및  
존립가치를 무너뜨려 삶의 의욕을 잃게 하고 있어 국  
가 및 지역사회외의 지원대책 확대의 시급함이 요구  
되고 사료된다.

### 4. 과거 회상과 관련된 경험

노인의 과거회상과 관련된 경험에서는 과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회상과 긍정적 회상으로 나타났다.

과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회상의 경우 남편과 정이  
없었다, 옛날에 가난으로 고생을 많이했다, 자식이 없  
어 서러움을 많이 당했다등이 었고 과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회상의 경우는 젊어서는 잘 살았다, 젊어서는  
예뻐다, 젊어서는 건강했다로 현대와는 다르게 가부  
장적인 제도와 유교적인 제도하에 남편과 정이 없고  
자식이 없으면 서러움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왔고 경  
제적인 면에서도 어려운 시대에 살다와 고생을 많이  
했다.

자신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회상할 경우 자아존중감  
을 유지하고 자아정체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생의 의미를 찾게 할 수도 있다(McMahon  
& Rudick, 1964 ; Butler, 1963 ; Liton & Olstein,  
1969 ; LoGerfo, 1980-1981). 또한 부정적으로 과거  
를 회상한 경우 분노, 무력감,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  
인 정서와 해결되지 못한 갈등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정당한 출구를 제공받음으로써(Fry, 1983, 32) 억제  
되었던 격한 감정을 발산시켜 보다 편안한 마음을 갖  
게 한다.

Lewis(1970)는 회상을 하는 노인이 하지 않는 노  
인에 비해 자아개념의 일관성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  
고하고, 노년기에 자아개념의 위협을 느낄 때 이에  
대응하는 일종의 방어전략으로서 회상을 한다고 하였

다. Kiernat(1979)은 정신혼동을 일으키는 양로원 노인에게 회상을 실시한 결과 일상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Baker등(1985)의 연구에서는 정신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회상을 실시한 결과, 서로 마음을 터 놓고 지지하는 등 상호작용이 증진되고, 일상생활의 적응이 증진되었다.

전시자(1989)의 연구에서도 생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활동참여 증가와 우울 및 불안 상태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노인의 심리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노년기의 삶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통해 회상을 하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5. 소망과 관련된 경험

노인의 소망과 관련된 경험에서는 실현되지 못한 삶에 대한 소망과 자기 만족으로 나타났다. 공통요소는 편안한 죽음, 건강한 삶, 새로 태어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자식의 행복, 의료기관의 치료, 오랜 삶, 크게 바라지 않는 것 등이었다. 노인의 소망은 편안한 죽음이 가장 두드러지게 많았고, 특히 자는 잠에 죽는 죽음과 통증없이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죽기를 바랐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와 큰 의료기관의 적절한 관리를 간곡히 소망했다. 또 자식에게 푸대접을 받고 도움의 기대를 하지 않으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는 것과 자신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때 인간다운 삶을 소원했다. 또 현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오래 살고 싶어하며, 종교생활을 통해 현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사회학자들은 소망을 정서 또는 감정으로 보며 (Adams & Proulx, 1975), Day(1969)는 소망은 희망, 욕망이라는 구성인자와 개연성의 요소를 갖고 있으며 생각에 기초를 둔다고 했다. 인간의 소망이 시작되는 시기는 절망에 빠지기 쉬운 상태이며 특히 어떤 시련기간, 고난의 기간, 속박상태로부터 생긴다. 영세 독거 노인들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 문화적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세 독거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와 생활보호자금 증가 및 신앙생활을 통한 삶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노년기는 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체적 생리적 기능저하와 정서적 심리적 적응의 저하가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이에 반해 노인의 기본적 욕구는 증가되어 신체적 심리적 모든 요건에서 근본적인 갈등구조를 갖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들은 질병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으므로 간호적 측면에서 해당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폭 넓은 정신간호를 적용해야 된다고 본다. 둘째 환경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지나간 과거 회상을 통해서도 마음의 어두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밝고 보람되었던 것을 반복생각하게 하는 긍정적 회상요법의 시도나 여가활동 종교활동등이 삶의 만족에 도움이 되리라 보아진다. 셋째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경제력이 없으며 특히 질병이 있는 노인의 경우 외로움과 고독감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족의 지지이며, 가족이 없는 경우는 이웃, 교회, 지역사회 봉사기관 및 요원들의 지지를 통해 출발 되어야 하며 소일 거리제공도 노인들의 무로함을 달래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고 사료된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들이 삶을 통해 겪고 있는 살아 있는 경험(lived experience)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고 기술하고 분석하여 노인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삶의 유형을 확인하며 그 삶의 유형에 따른 간호학적 접근방향과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부산시내 4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영세 독거노인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5년 1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며 반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Van Kaam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의 구조적 정의는 '신체적 불편감'이었고, 가설적 정의는 '심한 통증 호소'와 '신체적 각기관의 기능저하'였다. 공통요소는 '심한 통증 호소'의 경우 '허리가 아프다' '사지가 아프다' '전신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속이 아프다' '눈이 아프다' '입이 아프다' '귀가 아프다' '치아가 아프다'였고, '신체 각 기관의 기능저하'의 경우 '세부 장기 기능이 악화되다' '만성질환이 발생되다' '보행이 불편하

다' '사지 움직임이 어렵다' '점차 몸이 약해진다'였다.

2)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경험의 구조적 정의는 '정서적 인지'였고 가설적정의는 '절망감' '수용'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다. 공통요소는 '절망감'의 경우 '혼자여서 외로워한다' '삶을 단념한다'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죄책감을 느낀다' '무기력함을 한탄하다' '늙고 병들어 한탄하다'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하다' '서글픔을 느끼다' '늙고 병들어 불안하다'이고, '수용'의 경우 '자신의 처지를 팔자로 알고 받아들이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다' '선행을 하다'이고, '죽음에 대한 생각'의 경우 '죽음이 빨리 오기를 원하다'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다' '자살을 시도하다'였다.

3) 지지체계와 관련된 경험의 구조적 정의는 '지지체계'이고, 가설적 정의는 '가족과의 교류' '절대자에 대한 사고' '경제적 곤란' '공적부조에 대한 기대' '의료수혜에 대한 기대' '이웃과의 교류' '여가선용' '부적절한 환경에 대한 불만'이었다. 공통요소는 '가족과의 교류' 경우 '자식에게 기대를 갖지 않는다' '자식 없음에 대해 한탄하다' '자식으로부터 푸대접 받아 속상하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어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자식을 염려한다' '자식이 있어 위로가 된다' '형제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섭섭하다'였고, '절대자에 대한 사고'의 경우 '신앙으로 편안함을 얻는다' '절대자에게 감사한다' '절대자에게 의지한다' '신앙적인 갈등을 갖는다'였고, '경제적 곤란'의 경우 '의식주가 곤란하다' '사기가 저하되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치료를 받지 못한다'였고, '공적부조에 대한 기대'의 경우 '공적도움을 희망하며 감사하다'였고, '의료수혜에 대한 기대'의 경우 '의료수혜에 감사하다'였고, '이웃과의 교류'의 경우 '스스로 주변과 단절하다' '주변의 도움이 부담스럽다'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였고, '여가선용'의 경우 'TV를 보면서 소일한다' '스스로 목상한다' '집에서 하는일 없이 보낸다'였고, '부적절한 환경에 대한 불만'의 경우 '부적절한 주거환경을 불평하다'였다.

4) 과거회상과 관련된 경험의 구조적 정의는 '과거회상'이고 가설적 정의는 '과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회상'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회상'이었다. 공통요소는 '과거자신에 대한 부정적 회상'의 경우 '남편과 정이 없었다' '옛날에 가난으로 고

생을 많이 했다' '자식이 없어 서러움을 많이 당했다'였고, '과거에 대한 후회'의 경우 '지난일들이 후회스럽다'였고, '과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회상'의 경우 '젊어서는 잘 살았다' '젊어서는 예뻐다' '젊어서는 건강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젊어서는 영리했다' '가족들이 잘 대해 주었다'이었다.

5) 소망과 관련된 경험의 구조적 정의는 '소망'이었고, 가설적 정의는 '실현되지 못한 삶에 대한 소망' '자기만족'이었다. 공통요소는 '실현되지 못한 삶에 대한 소망'의 경우 '편안하게 죽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새로 태어나 살고 싶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병원의 치료를 받고 싶다' '더 오래 살고 싶다'였고, '자기만족'의 경우 '크게 바랄게 없다'였다.

이상의 결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노인들의 생생한 삶의 경험 현상의 다양한 심리적 측면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감안하여 노인의 양질의 삶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영세 독거 노인들의 복지제도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고성희(1990). 한국인의 정신건강 개념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귀분, 신혜숙(1992). 간호연구를 위한 현상학적 접근. 경희간호연구지. 15. 67-77.
- 김남선(1987). 한국 일부지역 농촌인의 질병개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1980). 근대화와 노인문제-한국노인문제의 현황과 대책-. 월간간호. 4권6호.
- 김미옥(1986). 노인의 소외감과 신체적 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1986). 우리나라 노인 복지사업에 있어서의 건강관리. 대한간호. 25(4). 55-61.
- 김정순(1991).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신체적 건강상태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동간호 전문대학 논문

- 집. 제7호.
- 김정순(1984). 양노원 거주 노인들의 기본욕구에 관한 조사 연구. 대동간전 논문집(창간호).
- 김정순(1984).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조사연구. 대동간호전문대학논문집. 4호.
- 김정순(1989). 노인의 사회적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자(1989). 노인층 인구의 건강문제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간호. 28(2).
- 김행자(1974). 서울시내 일부 노인들의 소외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제4권 1호. 32-42.
- 김태현(1986).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발달과업 성취도와 의 상관연구). 성신연구 논문집. 23(2).
- 대한적십자사(1995). 노인 건강관리.
- 모경빈(1980). 노화에 영향을 주는 육체적 요인과 간호. 대한간호. 19(1).
- 박이문(1977). 현상학과 분석철학. 77-80.
- 박이문(1990). 현상학. 서울:종로서적.
- 박정은 등(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한국여성 개발원.
- 박조열(1983).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아산사회 복지 사업재단.
- 안홍자(1975). 노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들의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제9호.
- 이영희(1993). 노인의 건강생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인협, 최성재(1987).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유향, 유현숙(1988).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한림대 사회개발연구소
- 조유향(1988).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능력장애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8(1).
- 조유향(1992). 노인보건, 현문사.
- 전산초(1986). 성인간호학. 수문사.
- 전산초, 최영희(1990). 노인간호학. 수문사.
- 전시자(1989). 회상의 내용 분석 및 간호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시자(1989). 노인의 가정간호. 대한간호. 28(3).
- 윤진(1991). 성인노인 심리학. 중앙적성 출판사.
- 이노우에 카즈야(송대현 역)(1988). 노년기의 임상심리학. 성원사. 1988.
- 木田 元저, 이수정 역(1989). 현상학의 흐름-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르 뵘뎀. 서울:이문 출판사.
- 질라시 W(1990). 이정호 역(1990). 현상학 강의. 서울:종로서적.
- 최남희(1991). 간호학의 방법론적 원리와 철학적 배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영희(1992). 후설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영희(1993). 질적 간호 연구. 수문사.
- 최영희, 조명옥(1992). 전통사회의 노인을 위한 돌봄행위에 관한 문화기술적연구. 간호과학. 4. pp93-108.
- 태영숙(1984). 노년기 발달단계를 중심으로한 간호중재. 대한간호. 23(2).
- 한덕순(1975). 노인들의 기본요구에 관한 조사. 공중보건잡지. 12권 2호. 361-372.
- Adams, C. L. & Proulx, J. R.(1975). Bereavement: Its psychosocial aspects: The role of the nurse in the maintenance and restoration of hope.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and London.
- Anderson, J. M.(1991). The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in J. M. Morse(Ed).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A contemporary dialogue. New York. SAGE Pub.
- Baker, P. H. & Robertson, W.(1985). Psychological therapy in affective disorders. Nursing Mirror. 160(2). pp34-36.
- Beaver, M. L.(1983). Human service practice with the elderl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Bromley, D. B.(1974). The Psychology of human aging. 2nd ed. C. Nicholls and Company Ltd. Brunner, L. S. Emerson, C. p. Ferguson, L. K. and Suddarth, D. S.(1970). Medical-surgical nursing. Philadelphia. Lippincott. 43-47.
- Bunmer, Suddarth(1993). Textbook of medical-surgical nursing. New York. Lippincott.
- Butler, R. N.(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26. 65-76.
- Cantor, M. H.(1979). Neighbors and friends. Research on Aging. Vol. 1. pp434-463.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 38. No. 5. pp 300–314.
- Colaizzi, P.(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lng(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s A. J.(1978).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nursing research. In N. Chaska (Ed). *The Nursing Profession ; Views through the mist*. N. Y : McGrow–Hill Book Co.
- Day, J. P.(1969). Hope.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6(90).
- Dean, A. and N. Lin(1977).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 165. No. 6. pp403–417.
- Fry, P. S.(1983). Structured and unstructured reminiscence training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Clinical Gerontologist*. 1. 15–37.
- Giorgi, A.(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 A phenominologically based approach. New York : Harper & Row.
- Havighurst(1977).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Let's learn about aging : a book of readings*. Barry & Wingrove eds. New York. Schenkman Pub. pp139–148
- Hess(1972). Friendship. *Aging and Society*. Vol. 3. pp357–393.
- Husserl, E. H.(1927). Phenomenology. *Encyclopedia Britannica*. 14th ed. 699–702.
- Johnson, C. L.(1983). Dyadic family relations and social support. *The Gerontologist*. Vol. we. pp377–383.
- Kahn, R. L.(1979). Aging and social support. *Aging from birth to death ;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ed. by M.
- Kiernat, J. M.(1979, May). The use of life review activity with confused nursing home residents.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3(5). 306–310.
- Larson, R.(1984). States of consciousness in personal relationship ; a life span respective, paper presented Madison, Wisconsin. July. pp22–27
- Leininger, M. M.(1985).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nursing*. Orlando ; Grune & Stratton, Inc.
- Lewis, C. N.(1970). Reminiscence and self–concept in old 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Linn M. W., Hunter K. K. and Perry P. R. (1979). Difference by sex and ethnicity i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elderly.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0.
- Liton, J. & Olstein, S. C.(1969). Therapeutic aspects of reminiscence. *Social Case Work*. 50. 263–268.
- Logerfo, M.(1980–1981). Three ways of reminiscence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 39–48.
- Lynch–Sauer, J.(1985). Using a Phenomenological research to study nursing phenomena. In M. M. Leininger.(Ed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Orland ; Grune & Stratton, Inc.
- May, R.(1967). *Mans search for himself*, New American Library. 1967.
- McDonald, A. P.(1970).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the practice of birth control. *Psychological Report*. Vol. 27. p206.
- McMahon, A. W. & Rhudick, P. J.(1964). Reminiscing.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0. 292–298.
- Oiler, C.(1982).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Nursing Research*. ANS 5 ; 2. 40–63.
- Parse, P. R.(1985). *Nursing research ; Qualitative methods*. Bowie, MD ; Brady Communication Co.
- Ray, M. A.(1981). A Philosiphical analysis of caring within nursing. In Leininger M. ; *An Essential Human Need*. Charles B. Slack, Inc. Thorofare, New Jersey.
- Roscow, I.(1977). Socialization to old age. Uni-

versity of California Press. 3-12.

Silverstone, B.(178). Family relationships of the elderly ; problems and implications for helping professionals. Aged Care and Services Review. Vol. 1. pp2-9.

Spiegelberg, H.(1984).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The Hague ; Martinus Nijhoff.

Van Kaam(1969). Existential foundations of psychology. New York ; Doubleday.

Van Manen, M.(1984). Do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and writing ; An introduction. alberta. British Columbia. Canada ; University of Alberta Publication Service.

- Abstract -

Key words : Phenomenology, Lived Experience, Elderly People.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Lived Experience of Elderly People**

*Huang, Bo Sun\* · Shin, Yu sun\*\**

*Yun, Suk Ok\*\*\* · Lee, Ji Hyun\*\*\*\**

*Jung, Kyung Yim\*\*\*\*\* · Kim, Jung Soon\**

*Kim, Lee Soon\*\*\*\*\* · Kim, Bok Yong\*\*\*\*\**

*Kang, Young M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lived experience by poor elderly people.

The research question was "What is the structure of the lived experience of life of a poor elderly people."

The sample consisted of 21 single poor elderly persons in Pusan. The unstructured interviews were audio-recorded and analyzed using the Van Kaam method.

This study was 368 responses which yielded of descriptive expressions and priority classifications.

The result generated 74 common elements, 18 syntheses of hypothetical definitions and 5 identifications of the structural definition.

The structural definitions and hypothetical definitions were as follows ;

1. physical discomfort
  - ; complaints of severe pain
  - ; dysfunction of physical organs
2. emotional cognition
  - ; despair
  - ; resignation
  - ; attitude toward death
3. support system
  - ; interaction with family
  - ; thinking about God
  - ; economical difficulties
  - ; expectancy of social services
  - ; opinions about health service
  - ; leisure
  - ; interaction with neighborhood
  - ; dissatisfaction due to inadequate environment
4. past reminiscence
  - ; negative reminiscence of one's past
  - ; past regret
  - ; positive reminiscence of one's past
5. desire
  - ; desire of unrealized life
  - ; self satisfac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for nursing are :  
Comprehension of the lived experience of client and identification of nursing approach method concerning the lifestyle of client.

\* Department of Nurs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 Jisan Junior College

\*\*\* A Part-time lecturer, Dept. of public Health,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Kosin University

\*\*\*\*\* Busan Baptist Hospital

\*\*\*\*\* Choon-Hae Junior Nursing College

\*\*\*\*\* Dae-Dong Junior Nursing college

〈부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명	성별	나이	종교	의료보험	가족	수입원	주거형태	독거기간
1. 김초엽	여	70	불 교	의료보호 2종	딸3 양자 1	자녀 적십자사	월세(5만)	10년
2. 이상금	여	79	통일교	보호1종	· (국졸)	정부지원	전세200만	9년
3. 서순옥	여	81	불 교	보호1종	딸2(무학)	정부지원 거택보호	전세600만	5년
4. 이소운	여	79	기독교	보호1종	· (무학)	정부지원	전세400만	13년
5. 김명분	여	76	카톨릭	보호1종	· (무학)	정부지원	전세400만 월세 2만	10년
6. 김정자	여	78	불 교	보호1종	· (무학)	정부지원	전세500만	55년
7. 서봉기	여	84	무	보호1종	딸1(무학)	정부지원	자가	16년
8. 김덕봉	여	66	무	보호1종	아들1, 딸1	정부지원 아들	전세	8년
9. 이맹순	여	77	무	보호1종	딸1	정부지원	월세	12년
10. 신정순	여	74	무	보호1종	딸4	정부지원 딸	월세	7년
11. 류월연	여	68	무	보호1종	딸1	정부지원	전세	10년
12. 명랑심	여	70	기독교	보호1종	딸1	정부지원	전세	4년
13. 한현은	여	80	불 교	보호1종	무	정부지원	전세600만	50년
14. 전승남	여	79	기독교	보호1종	아들2, 딸1	정부지원	전세400만	16년
15. 서양순	여	69	무	보호1종	아들2, 딸1	자신노동 (월10만)	전세400만	15년
16. 조예순	여	81	무	보호1종	·	정부지원	전세35만	62년
17. 마수연	여	71	기독교	보호1종	·	생활보호	자가	47년
18. 박소조	여	81	불 교	보호1종	딸2	생활보호 10만	전세	10년
19. 김정덕	여	80	기독교	보호	딸3	정부지원	전세	5년
20. 허복순	여	70	무	보호1종	·	정부지원	전세20만+월세6만	50년
21. 김영창	남	79	기독교	보호1종	·	정부지원	자가(무허가)	3년